<h1>나 혼자만 레벨업-90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g562c57fead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90화</p>  
<p>"나와라."</p>  
<p>모든 것은 그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.</p>  
<p>화악-</p>  
<p>주술사에게서 흘러나왔던 마력 파장보다 훨씬 더 거대한 진동이 사방으로 뻗어 나갔다.</p>  
<p>그러나 변화는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다.</p>  
<p>마력 개방과 동시에 진우의 발밑에서 그림자가 번져 나갔다.</p>  
<p>그림자는 곧 수면에 검은 잉크를 들이부은 것처럼 무서운 속도로 바닥을 뒤덮었다.</p>  
<p>"헉!"</p>  
<p>"뭐, 뭐야?"</p>  
<p>손기훈 팀 헌터들은 발밑을 지나가는 그림자를 보고 경악했다.</p>  
<p>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?</p>  
<p>경험 많은 헌터들조차도 난생처음 보는, 심지어 들어 본 적조차 없는 현상이었다.</p>  
<p>덜덜덜.</p>  
<p>막연한 두려움이 밀려들었다.</p>  
<p>바닥에 힘없이 누워 진우를 바라보던 손기훈도 전율에 몸을 떨었다.</p>  
<p>'무얼... 대체 뭘 하려는 겁니까?'</p>  
<p>손기훈의 의문에 대답이라도 하듯 그림자가 보스방의 바닥 전체를 덮었을 때.</p>  
<p>스르르륵.</p>  
<p>그림자의 표면이 일렁이며 칠흑의 갑주로 무장한 병사들이 하나둘 올라왔다.</p>  
<p>['스킬: 군주의 영역'이 시전되었습니다.]</p>  
<p>[시전자의 그림자 위에서 싸우는 그림자 병사들의 능력치가 50% 상승합니다.]</p>  
<p>진우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'좋아.'</p>  
<p>악마성에서 70레벨을 달성하고 새로이 습득한 직업 전용 스킬이었다.</p>  
<p>한층 더 강해진 병사들의 사기가 느껴졌다.</p>  
<p>자연히 만족스런 얼굴이 되었다.</p>  
<p>소환된 그림자 병사 50기는 진우를 호위하려는 것처럼 진우 주변을 둘러쌌다.</p>  
<p>"크, 크르륵!"</p>  
<p>"그륵!"</p>  
<p>용맹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하이오크 전사들이 진우와 그의 병사들이 주는 위압감에 지레 겁먹고 한 걸음,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.</p>  
<p>"오, 오크들이 물러서고 있어!"</p>  
<p>"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..."</p>  
<p>헌터들은 믿기 힘든 장면에 파르르 몸을 떨면서도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.</p>  
<p>"너도 느꼈어?"</p>  
<p>"그래."</p>  
<p>"이게... 이게 말이 돼?"</p>  
<p>마력에 민감한 마법계열 헌터들은 빨라지는 심장 박동을 자의로 멈출 수가 없었다.</p>  
<p>고작 E급으로 알고 있던, 그것도 대타로 데려온 짐꾼에게서 압도적인 양의 마력이 흘러나오고 있었다.</p>  
<p>'아니, 애당초 이게 마력이 맞긴 한 건가?'</p>  
<p>'하이오크 주술사의 것보다 더 불길한 마력이라니...!'</p>  
<p>보스룸을 가득 메운 마력의 압력에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다.</p>  
<p>이만한 힘이 자신들에게 적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절로 안도가 되었다.</p>  
<p>반면 하이오크들 사이에선 극도로 고조된 긴장감이 흘렀다.</p>  
<p>그림자 병사들의 출현으로 1 대 150이었던 격차가 50 대 150으로 줄었다.</p>  
<p>더욱이 그 50은 단순한 50이 아니었다.</p>  
<p>숫자로 취급할 수 없는, 궤를 벗어난 강함!</p>  
<p>그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진우가 가장 먼저 튀어 나갔다.</p>  
<p>그러자 주술사가 소리쳤다.</p>  
<p>"뭐 하느냐! 당장 저 인간 놈을 쳐 죽이지 않고!"</p>  
<p>마력을 가득 실은 목소리에 등을 떠밀린 하이오크들이 괴성을 지르며 무기를 들었다.</p>  
<p>"크아아아아아!"</p>  
<p>샤샤샥, 스걱!</p>  
<p>군주의 영역 스킬은 그림자 병사들만을 위한 것.</p>  
<p>하지만 능력치 상승 버프가 없어도 진우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보여 주었다.</p>  
<p>"크아아악!"</p>  
<p>"크아, 크아아!"</p>  
<p>하이오크들이 비명을 질렀다.</p>  
<p>진우의 단검 두 자루에 잘려 나간 하이오크들의 신체가 피와 함께 사방으로 흩날렸다.</p>  
<p>어찌나 빠른지 일류급 헌터들의 눈에도 잔상이 새겨질 정도였다.</p>  
<p>"저거..."</p>  
<p>"그래, 꼭 부사장님처럼."</p>  
<p>차해인의 별명은 무희였다.</p>  
<p>평소에는 얌전하다가도 일단 전투에 돌입하면 빠른 템포의 춤을 추는 듯 기민하게 마수들을 베어 넘기는 모습에 붙은 별명이었다.</p>  
<p>부끄럽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금지시키는 바람에 널리 쓰이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종종 언급되는 별명이었다.</p>  
<p>지금 짐꾼은 그런 차해인과 동등한, 아니 그 이상의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었다.</p>  
<p>차해인이 춤이라면, 짐꾼은 폭풍이었다. 폭풍의 중심이 되어 마수들을 분쇄하고 있었다.</p>  
<p>그어어어!</p>  
<p>그림자 병사들도 지지 않았다.</p>  
<p>아이스 베어의 우두머리였던 탱크의 앞발을 시작으로 그림자 병사의 진격이 시작되었다.</p>  
<p>아이언이 선두로 나섰다.</p>  
<p>아이언은 언제나처럼 본격적인 전투에 들어가기 앞서 가슴을 펴고서 함성을 내질렀다.</p>  
<p>우워어어어어!</p>  
<p>[아이언이 '스킬: 도발의 함성'을 사용합니다.]</p>  
<p>[대상들의 저항력이 높아 효과가 발동하지 않습니다.]</p>  
<p>자신의 스킬이 먹히지 않자 화가난 아이언이 괴성을 질렀다. 그러고는 육중한 쇠망치로 하이오크들을 박살 내기 시작했다.</p>  
<p>부우웅-</p>  
<p>콰직!</p>  
<p>빠각!</p>  
<p>"크하악!"</p>  
<p>"키엑!"</p>  
<p>오죽하면 아이언 앞에 있는 하이오크들이 불쌍할 지경이겠는가.</p>  
<p>반면 이그리트는 아이언과 대조될 정도로 우아하고도 효율적으로 적들의 목을 베어 갔다.</p>  
<p>이그리트에게 걸린 하이오크들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숨이 끊어졌다.</p>  
<p>스걱!</p>  
<p>이그리트의 검이 원을 그리자 또 하나의 하이오크가 머리를 잃었다.</p>  
<p>일반 병사들은 하이오크들을 상대하기가 버거웠으나 그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체력과 무한에 가까운 재생력이 있었다.</p>  
<p>그렇게 시간을 끌기만 하면 어김없이 마법병의 불벼락이 떨어져 내렸다.</p>  
<p>쿠아아아앙-!</p>  
<p>화르륵!</p>  
<p>하이오크들의 수가 가파르게 줄어갔다.</p>  
<p>주술사가 돼지 같은 볼살을 푸르르 떨었다.</p>  
<p>'이 건방진 인간 놈이!'</p>  
<p>놈의 시선은 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.</p>  
<p>일단은 저 인간 놈을 잡아야 했다.</p>  
<p>검은 갑옷을 입은 병사들은 인간놈이 소환해 낸 소환수!</p>  
<p>인간을 죽이면 병사들 또한 사라질 터.</p>  
<p>진우를 잡기 위해 주술사가 주문을 외웠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주술사의 입술이 빠르게 움직였다.</p>  
<p>둔화의 노래, 실명의 노래, 고열의 노래, 격통의 노래, 수마의 노래.</p>  
<p>다섯 가지의 강력한 저주가 순식간에 완성되어 상대에게 날아갔다.</p>  
<p>"됐다!"</p>  
<p>주술사의 입꼬리가 올라갔다.</p>  
<p>저주가 완성되는 순간 진우도 마력의 이동을 느꼈다.</p>  
<p>'마법?'</p>  
<p>진우와 주술사의 눈이 마주쳤다.</p>  
<p>주술사가 히죽 웃었다.</p>  
<p>'이미 늦었다, 인간.'</p>  
<p>저주는 평범한 마법과 달리 피할 수가 없다.</p>  
<p>발동하는 순간 끝장인 것이다.</p>  
<p>온갖 저주로 걸어 다니는 시체가 된 놈은 이제 전사들의 곡도에 갈기갈기 찢겨 죽을 운명.</p>  
<p>분수도 모르고 설쳐 대는 인간에게 어울리는 최후였다.</p>  
<p>그러나 그때.</p>  
<p>진우의 귓가에 익숙한 기계음이 들려왔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이상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.]</p>  
<p>['버프: 면역'의 효과로 이상 상태가 제거됩니다.]</p>  
<p>띠링, 띠링, 띠링.</p>  
<p>기계음이 빠르게 이어졌다.</p>  
<p>['저주:둔화'가 사라집니다]</p>  
<p>['저주:실명'이 사라집니다.]</p>  
<p>...</p>  
<p>...</p>  
<p>다섯 개의 저주가 발동할 틈도 없이 제거됐다.</p>  
<p>씨익.</p>  
<p>이번엔 진우가 웃었다.</p>  
<p>자신에겐 플레이어가 되면서 받았던 버프가 있었다.</p>  
<p>[대주술사 칸디아루의 축복]</p>  
<p>-지속 효과 '무병장수': 모든 질병과 독성 및 이상 효과에 면역상태가 되며, 수면 시 재생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.</p>  
<p>덕분에 저주 같은 상태 이상 마법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다.</p>  
<p>"아, 아니!"</p>  
<p>주술사는 흠칫 몸을 떨었다.</p>  
<p>A급 던전의 보스답게 놈은 자신이 건 저주가 무언가 다른 힘에 무력화되었음을 금방 눈치챘다.</p>  
<p>'어떻게 이 몸이 건 저주를?'</p>  
<p>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.</p>  
<p>저주를 무력화시키려면 그보다 더 뛰어난 힘을 가진 자의 축복이나 해제 마법이 필요하다.</p>  
<p>'인간 중에 이 몸보다 뛰어난 주술사가 존재한단 말인가?'</p>  
<p>그러나 고민이 길어지기 전 발등에서 올라오는 격통에 주술사는 비명을 질러야 했다.</p>  
<p>"크아아아아악-!"</p>  
<p>아래를 내려다보니 발등에 단검이 하나 박혀 있었다.</p>  
<p>"끄으으으..."</p>  
<p>진우의 단검 '나이트 킬러'였다.</p>  
<p>주술사는 고개를 들어 핏발 선 눈으로 진우를 노려보았다.</p>  
<p>"네놈이 감히..."</p>  
<p>자신에게 달려드는 하이오크 하나를 베어 넘긴 진우가 주술사에게 입 모양으로 의사를 전달했다.</p>  
<p>-얌전히 차례를 기다려라.</p>  
<p>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.</p>  
<p>진우를 응시하던 주술사의 얼굴이 잘 익은 감처럼 붉게 달아올랐다.</p>  
<p>"인간 따위가!"</p>  
<p>아직도 화를 낼 여력이 있구나.</p>  
<p>진우의 표정이 싸늘히 식었다.</p>  
<p>사실 마음만 먹었으면 전투가 시작하자마자 주술사를 제거할 수 있었다.</p>  
<p>하지만 그러지 않았다.</p>  
<p>주술사가 헌터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주술사에게도 두려움이란 감정을 심어 주고 싶었다.</p>  
<p>그런데 저 오만한 마수의 두려움을 일깨우기에는 이 정도로 부족한 듯했다.</p>  
<p>놈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.</p>  
<p>그렇다면.</p>  
<p>'재미있는 광경을 보여 주마.'</p>  
<p>지금부터가 진짜 네크로맨서의 영역이었다.</p>  
<p>그림자 군주로서 바라보는 주변의 광경은 그야말로 산해진미로 가득한 축제의 현장이었다.</p>  
<p>검은 연기가 곳곳에 널브러진 하이오크들의 사체에서 진우의 부름을 기다리는 듯 스멀스멀 피어 올라왔다.</p>  
<p>진우는 그들을 불러냈다.</p>  
<p>"일어나라."</p>  
<p>[그림자 추출을 시도합니다.]</p>  
<p>스킬이 발동되었음을 알려 주는 시스템 메시지와 함께 어디선가에서 단말마를 닮은 끔찍한 비명 소리들이 들려왔다.</p>  
<p>으아아아아아아-</p>  
<p>주술사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"이 무슨!"</p>  
<p>주술사는 뒷말을 잇지 못했다.</p>  
<p>말을 맺기도 전에 하이오크 사체들의 그림자에서 검은 손들이 솟아올라왔기 때문이다.</p>  
<p>[그림자 추출에 성공했습니다.]</p>  
<p>진우는 그림자 군단에 합류한 신참들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'내 전사들이 언데드로...!'</p>  
<p>주술사는 부르르 떨었다.</p>  
<p>목숨을 잃은 전사들의 숫자가 대략 오십.</p>  
<p>딱 그 정도의 숫자가 검은 갑옷의 병사들로 변했다.</p>  
<p>'그렇다면 저놈이 가진 병사들 또한 전부...?'</p>  
<p>주술사는 드디어 정체불명의 인간이 평범한 소환수를 다루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.</p>  
<p>그리고 상대의 힘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도.</p>  
<p>50대 150의 싸움이 100대 100으로 바뀌었다.</p>  
<p>자신보다 강한 적을 상대로도 용맹하게 싸우던 하이오크족 전사들이었지만, 그림자 병사들로 되살아난 동료들을 보고는 급격히 전의를 상실해갔다.</p>  
<p>"크... 크르륵."</p>  
<p>"크륵."</p>  
<p>"크악."</p>  
<p>피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이오크 전사들이 대놓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.</p>  
<p>죽어서 전사들의 성지로 올라가지 못하고 적의 꼭두각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하이오크 전사들에게 악몽과도 같았다.</p>  
<p>확실히 그림자 추출 스킬을 보여준 효과가 있었다.</p>  
<p>'전사들에겐 먹혔는데, 주술사는 어떤지 볼까?'</p>  
<p>진우는 주술사의 안색을 살폈다.</p>  
<p>'오.'</p>  
<p>진우의 얼굴이 밝아졌다.</p>  
<p>드디어.</p>  
<p>놈의 눈동자에서 공포심을 발견했다.</p>  
<p>주술사는 부르르 떨면서 죽은 자를 그림자로 되살리는 능력을 지닌 존재를 기억해 냈다.</p>  
<p>그런 힘을 가진 이가 둘 이상 있을 리가 없었다.</p>  
<p>그는 그다.</p>  
<p>'저분이 바로... 그렇다면 우리는 어째서 여기에?'</p>  
<p>주술사가 '자신'과 '자신들'에 대해 인식한 순간,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기억이 깨끗하게 사라졌다.</p>  
<p>그 자리에 남은 감정은 두려움뿐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만족스런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'그래, 그렇게 있어라.'</p>  
<p>주술사 놈은 맨 마지막에.</p>  
<p>주술사를 마지막까지 두려움에 떨게 만들겠다는 계획은 성공적이었다.</p>  
<p>그렇게 웃으며 돌아서는데, 멀리 입구 문턱에서 낯익은 여자가 하나 보였다.</p>  
<p>진우가 고개를 갸웃했다.</p>  
<p>'누구더라?'</p>  
<p>낯익다기엔 또 거리감이 느껴지는.</p>  
<p>그래서 찰나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녀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었다.</p>  
<p>헌터스 소속의 S급 차해인.</p>  
<p>'근데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지?'</p>  
<p>진우가 차해인을 보고 놀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란 차해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진우와 그림자 병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.</p>  
<p>=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